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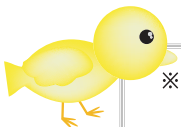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흑서기때 양계 폐사율이 많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특히 산란계 폐사율이 높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A 섭취량 저하에 따른 영양소 감소로 체력이 저하되면서 질병발생 등으로 폐사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개구호흡이 증가하면서 병원성 세균이나 유해물질이 여과 없이 체내로 들어오면서 질병감염의 위험이 증가하여 폐사가 늘어날 뿐 아니라, 고온 스트레스는 체내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질병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고온스트레스는 스트레스 관련 물질을 증가시키고 체내 대사율 증가, 영양소 이용량 증가, 체내 저장 영양소의 증가를 유발시킵니다. 체내 저장 영양소를 이용할 때 간이 관여하며 결과적으로 간을 혹사시키면서 지방간을 유발하고 폐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산란계 농장에서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에 지방간에 의한 폐사가 크게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답변제공 : 유한진 조인(주) 이사, 축산기술사)

Q 티푸스 생독백신을 2회 접종해도 무더운 여름철에는 또 다시 발생하네요. 티푸스 재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은 없나요?

A 생독백신 접종으로 발생률은 낮아졌으나 아직도 여전히 발생되고 있으며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첫째는 1,2차 백신 접종만으로 방어가 된다는 안이한 생각에 철저한 차단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둘째는 접종상의 문제점입니다. 즉 백신 접종 주사기, 접종량, 백신의 항원량, 접종팀 특히 백신 접종시 0.2~0.5ml 연속 주사기로 접종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는데, 대부분 2ml 연속 주사기를 사용하여 정확한양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셋째로 육계 종계장과 토종닭 종계장에 가끔 티푸스 발생에 대한 규제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질병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입니다. 예방 대책으로는 1,2회 백신접종을 하여도 45주령이후 3차 접종을 권장합니다. 특히 여름철을 지나는 노계의 경우 백신의 재접종이 필요합니다. 사료내 유기산이나 생균제를 첨가하는 것도 티푸스 예방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답변제공 : 하봉도 한국양계수의사회장, 수의학박사).



※ 본란은 독자들께 사양, 유통, 질병, 시설 등 전반적인 양계에 관한 질문을 받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답변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메일을 보내주세요.

ch-spirow@hanmail.net(장성영), i727i@naver.com(이경현)